

화학기업, 안전사고 예방 낙제점...

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만1469개 ... 위험성평가 실시 31.8% 불과

국내 화학기업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 2-12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만6846개를 대상으로 <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>를 실시한 결과, 화학물질 1종 이상을 생산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291개,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6만1469개로 2009년보다 2만911개 늘어났다. 공기압축기,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09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했다.

그러나 사업장 안전예방 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 및 각종 사고요인을 예방하는 <위험성 평가>는 전체 사업장의 31.8%만 받았고,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13.0%에 그쳤다.

작업환경실태 조사는 1993년부터 5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며, 작업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사업장의 안전·보건 및 유해 작업환경을 비롯해 위험 기계·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파악한다.

노동부 오행록 화학사고예방과장은 “실태조사 결과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과 산업안전보건 지도·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1/16>